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보코하람 추정 세력, 여성·아동 176명 납치… 처형하겠다 “위협”**



나이지리아 콰라주 워로(Woro) 공동체에서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여성과 아동 176명을 납치한 뒤, 정부에 7일 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지 매체 트루스나이지리아는 지난달 29일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지역 안보 불안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워로의 전통 통치자이자 피해자 가족인 살리후 비오는 인질 가운데 한 명이 무장세력의 허락을 받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체 원로 알하지 무사 이드리스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며, 이들은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이라며

“살해나 강제 결혼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두 딸이 납치된 한 어머니는 “우리는 잠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모여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 작전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격은 금요일 새벽 직후 이루어졌다. 무장대원들은 가정집과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동시에 급습해 주민들을 제압했고, 여성과 아동을 따로 분리한 뒤 숲길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조직적 작전으로, 사전 계획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념적 테러와 금전 목적 납치가 결합된 ‘혼합형 범죄’의 전형적 사례라고 분석한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반군 조직들이 대규모 인질을 확보한 뒤 몸값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사건 지역은 니제르주와 카두나주를 연결하는 숲 회랑과 인접해 있어 무장세력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북동부 중심이던 활동이 중부 벨트와 수도 아부자 방향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군과 경찰, 자경단을 동원해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무장세력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과 표적화된 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대응 수준으로는 유사한 대규모 납치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이사야 42:3,6)

하나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들의 손을 잡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구조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무장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그 배후의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교회를 향한 이 같은 박해와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이지리아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땅의 교회를 친히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나이지리아의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일본, 병원·장기 요양 시설서 환자 ‘성폭력·학대 경험’ 15%

일본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에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학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뉴시스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전국의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한 기관 1,113곳 중 15% 이상이 성폭력 또는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자의 연령대는 19-39세가 66.7%로 가장 많았다. 12-18세는 3.3%에 그쳤는데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는 어린 아이들 특성상 실제보다 낮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본 조사는 지난 2024년 5월 후쿠오카 국립병원에서 한 환자가 남성 간호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5명의 남성 간호사가 11명의 중증 장애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도쿄의 한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언 14:31)

하나님, 의료진들에 의한 폭력에 노출됐던 환자들의 상처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일삼는 의료진들의 패역함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십시오. 연약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임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학대를 일삼았던 존재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바꾸신 복음의 능력을 일본 가운데 나타내 주소서.

▲ 콩고민주공화국, ISIS가 기독교인 60여명 살해... 종교 박해 양상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주 맘바사 지역 바프와코아 마을에서 이달 초 아이시스(ISIS.이슬람국가) 중앙아프리카지부(ISCAP) 소속 무장세력이 야간 공격을 감행해 기독교인 최소 60명이 살해됐다고 에반헬리코 디히탈이 보도했다. 테러 조직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ISIS 계열)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대원들이 밤사이 마을에 침입해 주민들을 공격했고, 군의 즉각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 후 주택과 차량 방화, 약탈이 이어졌고, 현지에서는 조직적 폭력 증가로 주민들이 지속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치안 악화를 넘어 기독교인을 겨냥한 종교 박해이자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투리·북키부 일대에서는 올해 들어 공격이 잇따라 수십 명이 추가로 숨지고 수천 명이 피난했으며, 최근 1년간 사망자는 1,000명 이상, 피란민은 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ISCAP가 군의 취약성과 공조 부족을 틈타 세력 확장과 공격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5, 37)

하나님, 기독교인을 겨냥한 박해로 무장세력의 공격과 조직적 폭력이 증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원수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며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잃은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를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심령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 예수 생명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개신교회 대부분 폐쇄... 기독교인들, 지하 활동으로 내몰려



알제리에서 비무슬림 예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문을 닫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나 비공식 모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인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신앙 생활이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정책의 연장선이다. 유럽법과정의센터는 이를 국제 종교 자유 기준과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법과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제한이 존재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알제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기독교 소수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최소 58개의 개신교 교회가 폐쇄됐고, 2025년 기준 남아 있던 교회들 역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신자들의 예배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공식 교회 대신 가정이나 임시 공간, 야외 등에서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는 ‘올리브 나무 아래 교회’로 불리는 형태로 모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유지 방식 자체가 비공식적이고 분산된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비무슬림 종교 활동은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에 허가가 거의 내려지지 않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모임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목회자와 신도들이 예배를 이유로 기소되거나 체포·조사를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률은 ‘무슬림 신앙을 훼손하는 행위’나 개종 시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이에 따라 종교 표현, 소셜미디어 게시물, 신앙 관련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자들은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기독교 공동체는 최근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현재 약 15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공식 제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개별 사건이 아닌 제한적 법·행정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결론지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편 20:6-7)

하나님, 알제리에서 비무슬림 예배에 대한 통제 강화로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알제리 교회들을 통해 많은 병거와 자기 힘을 의지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환란 중에 피할 요새 이시며 교회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이 때에 알제리의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자랑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홍해 선박 납치 확산… 예멘 후티·소말리아 해적 결탁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결탁해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유조선 납치 등 해상 범죄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4일 연합뉴스가 폭스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자 에너지 수송로로서 홍해의 중요성이 커지며 약탈 대상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일 예멘 남부 샤브와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무장 세력에 납치돼 아덴만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 간 거래 관계가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와 군사적 암호를 제공하고, 소말리아 해적이 실제 납치를 수행하는 분업화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송 일부가 홍해로 우회한 점도 해적 활동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납치 수법은 선박과 선원, 화물을 함께 억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 위험도를 '상당함'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근 최소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해는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15%,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항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4)

하나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과 예멘 반군을 꾸짖어 주옵소서. 또한 납치당한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소서. 주님, 악을 행하는 데에 발 빠른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을 모든 해적과 반군에게 비추사 악행을 그치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를 위해 살며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홍해 인근에서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소서.

▲ 중국, 국제 인권회의 중국 압박에 취소… '대만 활동가 참가' 문제 삼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5일 열릴 예정이던 국제 인권회의 '라이츠콘 2026(RightsCon 2026)'이 대만 관련 인사들의 참가를 문제 삼은 중국의 압박으로 개막을 며칠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4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인터넷 검열, 전자 감시, 사이버 전쟁, 표현의 자유 등 디지털 시대 인권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행사로, 올해 약 150개국에서 4,000명 참가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주최 단체 '액세스 나우'가 돌연 취소를 공지했고, 잠비아 정부 역시 당초 회의를 '연기' 입장에서 사실상 개최를 철회했다.

현지 매체는 참가할 예정이었던 대만 대표단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행사장이 중국 지원으로 정비된 시설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최 측은 "외세의 개입이 이번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이유라고 본다"며, 잠비아 당국으로부터 중국 외교관들이 대만 활동가 참가 문제를 이유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대만 관련 참가자 제한과 논의 주제를 조정하라는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최 측은 이는 "시민사회를 표적으로 한 초국가적 탄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언 1:22-23)

하나님, 계속하여 인권에 대한 책망을 들어왔던 중국이 국제 인권회의를 앞두고 중국정부에 대한 대만의 입장 발언 가능성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거만한 중국 정부의 미련함을 꾸짖어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견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참된 지혜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 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기독교 지형 변화 가속... “인구 이동·도시화·박해 대응 시급”



전 세계 기독교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축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회는 단순한 교세 확대를 넘어 인구 이동과 도시화, 종교 지형 변화, 박해, 난민 위기, 재정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역할과 사역 방식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가 발표한 ‘2026년 세계기독교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교회의 흐름을 수치와 함께 분석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교와

목회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 인구는 연평균 약 0.95%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중심은 전통적인 서구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이 교회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유럽과 북미가 중심이던 구조와 달리, 남반구 국가들은 청년 인구 증가와 활발한 교회 개척을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는 세계 교회의 리더십 구조와 신학적 담론, 선교 우선순위까지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반면 유럽과 북미 등 전통적 중심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 기독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세속화와 개인주의 확산, 신앙 전승 약화, 전쟁과 정치·경제적 불안, 이민 증가 등이 이러한 흐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는 교회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도시는 이동성과 익명성, 다문화 환경이 특징이어서 기존 지역 중심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선교와 직장·캠퍼스·온라인 사역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사역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전히 약 23억 명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이며, 박해와 난민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 내부의 재정 문제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으며, 향후 교회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하나님, 전 세계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복합적인 도전 앞에 있는 열방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속화와 도시화로 시대가 달라져도 주의 교회가 여전히 붙들고 자랑할 것은 영원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몸 된 교회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사 주의 생명이 모든 장벽을 뚫고 온 열방에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마침내 선교완성을 이루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핀란드, 성별불쾌감 청년 성전환 치료 이후 정신과 진료 이용 증가

핀란드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겪는 청년들이 성전환 관련 치료를 받은 이후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학 학술지 '악타 페디아트리카(Acta Paediatrica)'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핀란드 성별정체성 클리닉을 방문한 23세 미만 청년 약 2,000명을 추적해 정신과 진료 이용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23세를 정체성 발달의 일반적 기준점으로 보고 연령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약 50%는 성전환 치료 의뢰 이전부터 이미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성별 불쾌감을 겪지 않은 일반 청년 집단의 15%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였다.

또한 치료 의뢰 이후에는 정신과 진료 이용이 더욱 증가해,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환자의 61.7%가 2년이 지난 뒤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반면 일반 집단은 같은 기간 약 14%에 그쳤다. 특히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증가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9.8%에서 60.7%로, 여성은 21.6%에서 54.5%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연구진은 환자들이 받은 정신과 진료의 구체적 내용이나, 해당 진료가 성별정체성 치료 과정의 일부인지 또는 별개의 정신과적 문제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성별정체성 클리닉 내 정신과 진료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린도후서 3:16,18)

하나님, 핀란드 청년들의 눈을 가리운 너울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생명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신체까지 억지로 바꿔 보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저들의 터진 웅덩이와도 같은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핀란드의 교회가 이때 더욱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목마른 청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십자가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 생명의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 유럽 5개국, '법치주의 해체국' 분류... "전반적 개선 없어"

유럽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후퇴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시민자유연맹이 발표한 '2026 법치주의' 보고서는 유럽 2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 독립성, 부패 대응, 언론 자유, 시민사회 기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를 '법치주의 해체' 단계에 있는 국가로 분류하며, 이들 정부가 제도 약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현 정권의 정치적 성향 아래 전반적인 후퇴가 두드러졌고, 헝가리 역시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개선 움직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체코,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들에서도 법치주의가 서서히 약화되는 흐름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기도24:365본부).

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잠언 11:18-19)

하나님,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특별히 5개국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치주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악인의 샅은 허무하며 사망에 이른다는 주의 말씀 앞에 유럽의 위정자들이 두려움으로 서서 정의를 굽히는 그들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법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들의 교회를 깨우사 주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유럽의 모든 영혼이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